



## 재치료 결핵환자 지원사업

글 | 홍순구(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과장)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8월 1일부터 보건소 등록결핵환자의 재치료(2차 항결핵제)에 대한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결핵관리사업은 보건소를 통한 초치료(1차 항결핵제) 환자를 중심으로 관리하여 80% 이상 완치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 17,087명(2004년) 중에서 초치료 실패자가 103명(0.6%)이나 되며, 중단자도 799명(4.7%)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추구·관리할 대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건소에서 결핵 전문인력 부족으로 결핵환자들이 초치료에 실패하거나 중단 또는 전출자에 대한 추구관리가 미흡하여 결핵전문 의료기관으로 치료를 의뢰함에 따라 생활형편이 어려운 결핵환자들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결핵을 치료, 관리하는데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건강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은 보건소에 3개월 이상 등록하고 부득이 재치료를 받아야 할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150여 명에게 1인당 월 6만5천원~6만8천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의료비 지원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진료자에게 지급하며, 지원 신청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캡션질병관리본부 전염병정보망 (dis.cdc.go.kr)의 메인 화면. 결핵 환자 지원사업 이외에도 각종 질병정보, 통계 등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신청하는데, 연중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면 된다.

앞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동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하여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작용 및 합병증으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치료중단을 방지하여 재발의 악순환을 차단하게 될 것이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결핵을 계속 치료하게 함으로써 완치율을 높이며 다제내성을 감소시켜 사망자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06년부터는 그 대상이 200~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78만원~8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2억5천만원을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지침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건소에 배부하였으며, 민원인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질병관리본부 전염병정보망(dis.cdc.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서 등도 이곳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ㅈ